



인류 최대의 적이라 불리우는 「암」 그 단어만 들어도 어둡고 절망적인 것을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생각해 왔지만 암도 이제는 현대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조기발견으로 인한 조기치료를 중요시 함으로써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점에 이르렀다.

검사여담

암은 우리의 신체 어느 곳이나 생길 수 있고, 치료시기에 따라 치료효과에 대한 편이한 차이가 있다는 것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고는 있었지만 각자 개인적인 대책을 세우기까지는 아직도 올바른 인식이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급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암은 어느 장기에 서 보다 워나 자궁 등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조기에는 특유한 증세가 없으므로, 정기검진의 기회는 경제소득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비례 하기 때문에 악화된 상태까지 도달하여 병원문을 두드리는 불행한 사례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정기검진은 꼭
" " " " " "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효과는 선진국일수록 높아서 구라파나 미국,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암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자궁경부암은 이미 정복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여성들은 왜 아직까지 자궁암에서 해방되지 못하는가? 를 우리들의 당면 과제로 절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되겠다.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여성의 절대적인 기능을 맡은 자궁이, 여성의 생애를 마치는 죽

손으로 잡이주는곳

사용시피어날것

손잡이

고정액

定期検診,

必要한가?



습관화 되도록...

“ “ “ “ “ “

■ 崔琪善

음의 장기로 선택, 부여 받은 것은 아닐텐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체인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희생되어 서야 안 되지 않겠는가?

가족들을 위하느라 자신의 건강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검진을 받아 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모든 이유들을 초월하여 우리 나라 도 선진국 못지 않게 자궁암의 사망

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본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또식(加藤式) 자가 채취법은 적은 비용으로 가정에서 본인이 직접 기구를 사용하여 가검물을 채취한 다음, 우편을 이용하여 우송함으로써 도시나 농·어촌 지역까지 범국민적인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므로 기혼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되고 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펼치면서 추시(follow-up)한 환자중 가장 최근의 한 실례를 소개하겠다.

접수 : 8월 13일(우편)

주소 :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번지

성명 : 민 ○○ 나이 : 만 60세
48세때에 폐경, 자각증세 별로 없고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했음.

검사실 처리는 가검물을 유리 슬라이드에 도말하여 Papanicolaou 염색했음.

결과 : 8월 16일 세포학적 분류인 Papanicolaou Class IV로 진단.

결과통보 : 8월 16일

그 후 서울 ○○병원에서 조직 생검 결과 자궁경부암종의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ervical Carcinoma) 「O」기 암(stage 0) 상피내 암종(침윤전 암종)임을 진단받고 지난 8월 30일 수술했음.



이러한 조기암의 치료는 그 효과율도 높아서 암 치료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정기검진이 습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불치의 병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기피하여 치료시기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는데, 암은 결코 불치의 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조기 암 진단과 그 진단의 숙련을 국가적 차원에서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궁암으로 사망하는 불행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진의 기회를 갖도록 권장 하고 싶다.

(필자 = 健協서울시지부 주임병리사)

유모어 극장 ■



수학적 계산

친구 셋이 모인 자리에서

갑: 참 자네, 술 끊었다지?

을: 그럼, 난말야 우선 5년간 끊기로 했어.

병: 하하……. 겨우 5년간이야. 나는 10년동안 밤에만 마시기로 했다네.

갑: 그 정도야. 난말야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밖에는 안마실건데……

야단났다

고추(?)값이 자꾸 올라가니……

속 썩인다

장기출장 갔다오던 날

막내녀석보고 밖에 나가 놀아라 했더니

엄마랑 같이 나가 논테나.

헤어핀

식당에 온 손님이 웨이터에게 소리 쳤다.

「여봐! 이 스프속에 이런 헤어핀이 들어 있어?」

「아이 괜찮아요, 손님. 그냥 가지세요. 또 있으니까요」